

인턴제 도입으로 '예비 출판전사' 양성

정신세계사·중앙M&B·한울 등 인턴사원 채용... 신분보장, 교육과정 미비 개선 과제

출판계에도 인턴제도가 도입됐다. 각 출판사들이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되기 시작한 '정부지원 인턴제'를 활용해 예비 출판전사들을 육성하고 있다. 현재 한국출판인회의의 공동모집을 통해 10명이 각 출판사에 배치됐고, 중앙M&B가 별도로 15명의 인턴을 채용했다. 동서문화사는 최근 일간지에 인턴사원 모집공고를 냈다. 이에 따라 가나인 불황의 터널을 지나고 있는 출판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12월에 발표된 노동부의 '정부지원 인턴제 시행지침(개정안)'에 따르면, '정부지원 인턴제'는 고학력 미취업자에게 현장실습의 기회를 제공해 취업에 대비하기 위한 실업대책이다. 인턴대상자는 각 대학의 자체기준에 따라 선발하고, 대상기업은 '사업자등록을 필한 고용보험가입사업체'다. 지난해 11월에 발표된 '상시근로자 5인 이상'으로서 사업자 등록을 필한 사업체보다 완화된 조건이다.

인턴을 필요로 하는 기업은 대학에 추천을 의뢰하거나, 일간지·인터넷 등으로 모집공고를 통해 선발하고 대학과 기업 그리고 인턴 3자가 6개월간의 '인턴약정서'를 체결한다. 대학은 기업으로부터 인턴의 출석상황을 확인한 후 월 50만원(5대 대기업은 40만원)의 인턴수당을 계좌입금한다. 대상기업은 추가로 교통비·중식대 등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인턴의 요청이 있는 경우 대학은 인턴기간 종료 이후 인턴 수료증명서를 발부해야 한다.

기대에 미치지 못한 채용인원

이러한 정부의 발표에 따라 한국출판인회의의 교육위원회(위원장 이재욱, 새로운사람들 대표)에서는 지난 1월부터 회원사들에게 인턴사원 공동모집 공고를 냈다. 그 결과 총 56개사에서 85명의 인턴사원을 요청했다. 하지만 지원자가 적어 6개월간의 '인턴십 출판입문' 예정도 무산되고 말았다. 이재욱 위원장은 "인턴채용의 자격이 5인 이상 상시근로업체에서 고용보험 가입업체로 바뀌면서 신청이 지연됐고, 대학홍보도 부족했다"고 해명하고 "6월부터 3개월 과정의 출판강좌를 기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력확보에 어려움을 느끼는 출판사에서는 인턴제도가 유능한 인재를 확보할 수 있는 길이기도 하다.

결국 18명의 지원자 가운데 현재 10명만을 가림·글수레·두리·오상·정신세계사·퇴실당·한울·해화당 등에 배정했다. 이들 인턴사원은 2월 20일을 전후해 각 출판사의 편집부·영업부·미술부에 배치됐다. 지원자들은 인문학 전공자부터 체육학과 출신까지 다양하며 편집디자인 학원 수료생도 6~7명 포함돼 있다.

한편 중앙M&B는 자체적으로 인턴사원을 모집했다. 지난해 12월부터 중앙일보 인터넷을 통해 모집사고를 낸 결과 총 1천여명이 응시했다. 1차 서류전형, 2차 필기시험(기자직·기사작성과 논문, 관리영업직은 작문과 상식), 3차 현장실습 3일(기사작성·집단토론·시장조사 등), 4차 면접 등의 엄격한 과정을 거쳐 2월 12일 기자직 10명, 관리영업직 5명을 최종 선발했다.

지난 8일부터 입사한 중앙M&B 인턴들은 각 매체사업별로 순환배치를 받았다. 잡지제작 일정에 맞춰 기자직은 2개조로 나눠 판매체를 1개월씩 순환하며 기획·취재·편집 등의 전 부문을 경험하고 관리영업직은 전원 경영지원에 배치됐다. 경영지원팀 천세균 차장은 "응시생들은 대부분 외국어 능력이 뛰어난 반면 작문과 상식 등의 점수는 천차만별이었다"며 "대학생들의 취직을 위한 영어 집착현상을 볼 수 있었다"고 소감을 밝힌다.

공적인 교육시스템 보완돼야

인턴채용을 희망한 출판사들은 대개 소구

모 출판사들로서, 연수개념보다는 신입사원 선발하듯이 인턴사원을 뽑았다. 대부분 경제적 부담 없이 필요인원을 선발한 뒤 교육기간을 거쳐 정식직원으로서의 채용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안이다. 인턴들에게 기초적인 업무과목과 교정실무에 필요한 지식 등을 실무를 통해 익히도록 하며, 인턴수당 이외에 교통비·중식비 등을 지급하고 있다.

각 출판사들은 인턴제도를 긍정적으로 본다. 정신세계사의 정주득 대표는 "인턴제도는 인력확보에 어려움을 느끼는 출판사에서 유능한 인재를 확보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고 평가한다. 출판단체에서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해주지 못한 점을 가장 큰 아쉬움으로 꼽았다. 한울의 임희근 이사는 "업무량이 과다한 개별 출판사에서 별도의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서

"출판단체에서 출판입문 과정을 개설해 교육했으면 한다"고 제안한다.

인턴채용 과정상의 혼란과 문제점을 지적하는 곳도 있다. 워낙 지원자가 소수였기 때문에 여러 출판사에서 복수면접을 통해 인턴을 선발해 결국 대형출판사들에게 유리하게 인재가 배분되었다는 불만이었다. "인턴채용의 주체가 출판사가 아니라 인턴이 돼 버린 꼴"이라고 항변하기도 한다. 또한 출판인회의에서 원래 출판사에 제시한 원칙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변동사항 등을 사후에 알려주는 조치가 없었다는 비판도 나왔다.

대학을 갓 졸업하고 출판현장에 들어온 인턴들의 소감은 비슷했다. 원하던 일을 하게 돼서 기쁘지만 신분보장이 되지 않아서 불안하다는 반응이 대부분이었다. 출판업무 전반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 마련됐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많았다. 한 인턴은 "인턴제도는 대학생들 사이에서 '현대판 노예제도' 정도로 인식되기도 한다"며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처지에 대해 비판적으로 보기도 했다.

비록 한시적이긴 하지만 인턴제도는 출판계에 새로운 피를 수혈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출판계의 주먹구구식 인력수급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기존인력의 재배치 과정에서 인맥과 학맥을 배제한 채 객관적인 정보가 활발하게 교류될 수 있도록 '인력뱅크' 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박천홍 기자

출판사 인턴사원의 1개월 체험 소감

이욱 — "평소부터 출판에 관심이 많았다. 한국출판인회의의 인턴모집 광고를 보고 지원했다. 현재는 출판사에서 교정실무와 제작 과정 등에 관해 공부하고 있다. 신분보장이 안된다는 점이 아쉽기는 하지만 원하던 일을 하게 돼서 기쁘다. 6개월 동안 열심히 일하면서 출판실무를 익히면 보람있는 시간이 될 것이다. 인턴기간 동안 출판과정을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마련되면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앞으로 좋은 출판인이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

박근홍 — "지도교수의 추천으로 출판사에 지원하게 됐다. 출판사에서 교정원고를 검토하면서 업무의 흐름을 배우고 있다. 대기업과는 달리 신분보장이 되지 않아 심리적인 불안감이 있지만, 일 자체는 즐겁다. 직원들 사이의 인간적 친밀감이 높은 점도 좋다. 하지만 대학생들 사이에서는 인턴제도에 대해 인식이 좋지 않다. 경제적 보상이 미흡하고 정식직원과는 달리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제약이 많아 오래 버티지 못하는 친구들도 많다."